[야간 워치 2026-11-16] 메모리 원가 압박, TV까지 - 컨슈머 측 신호의 누적

TrendForce의 새 TV 리포트가 나왔다. 표면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이야기지만, 이 블로그가 추적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메모리 원가 압박이 컨슈머 하드웨어의 또 다른 품목에서 확인됐다는 점이다.

■ 1. TrendForce: 3분기 TV 출하 -3.6%, 메모리 원가 압박 명시

[확인된 데이터] (모두 TrendForce, 2026-11-16)

출처: https://www.trendforce.com/presscenter/news/20261116-13306.html

- 3Q26 글로벌 TV 출하 4,794만 대. 전 분기비 +2.8%, 전년 동기비 -3.6%.
- 연간 전망: 2026년 1억9,348만 대(-1.4%), 2027년 1억9,117만 대(-1.2% 추가 감소).
- TF가 리포트에서 밝히는 원가 상황: 지속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, 메모리 가격 상승, 생산 원가 상승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메모리 가격 급등이 2026년 내내 TV 제조사의 수익성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명시.
- 제조사들의 대응: 대형 화면과 고사양으로 제품을 올려 ASP(평균판매단가)를 높여 원가 상승을 상쇄하려 했으나, 약한 소비 수요 때문에 충분히 메우지 못했다고 TF는 평가.
- Mini LED TV는 2026년 출하 2,878만 대(+116% YoY), 침투율 약 15%로 급증 - 프리미엄 이동이 진행 중.

[판단]

- TF가 확인한 것과 우리의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. TF가 확인한 것은 (a) TV 출하 감소, (b) 메모리를 포함한 원가 상승 압박, (c) 수요 약세로 상쇄 실패라는 세 사실이다. 출하 감소 전체가 메모리 때문이라는 인과는 TF도 주장하지 않는다 - 수요 약세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언급된다.
- 그 구분 위에서의 해석: 메모리 원가 압박이 확인되는 컨슈머 품목이 3주 연속 늘었다. 11/6 리볼드(재가공) 메모리 채택(스마트폰), 11/11 PC OEM의 메모리 조달 조정, 그리고 이번 TV. 품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같다 - 메모리 가격 상승분을 최종 가격에 온전히 전가하지 못하는 컨슈머 부문의 방어가 이어지고 있다.
- Mini LED로의 프리미엄 이동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. 원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수익을 지키려면 더 비싼 제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.

■ 2. 11월 18일 아침: NVIDIA 실적

- NVIDIA Q3 FY27 결과가 11/18(수) 06:20경 KST에 공개되고, 컨퍼런스콜은 07:00 KST에 시작한다(발행사 공지 기준).

출처: NVIDIA 뉴스룸 (2026-10-28) https://nvidianews.nvidia.com/news/nvidia-sets-conference-call-for-third-quarter-financial-results-6928873

- 임시 CEO Kress 체제의 첫 실적 발표다. 확인할 것: 데이터센터 매출과 가이던스, OpenAI 관련 투자·신용 지원 구조에 대한 경영진 언급(축소 보도가 있었다 - 11/14 다룸), HBM 등 메모리 공급 언급.

■ 누적 판단 (2026-11-16 기준)

- 투티어: 컨슈머 측 압박 데이터가 스마트폰(리볼드), PC(조달 조정), TV(출하 감소 속 원가 압박)로 넓어졌다. AI/서버 측의 타이트함과 컨슈머 측의 비용 방어가 공존하는 구조는 이 사이클의 핵심 프레임으로 유지.
- 다만 주의: 컨슈머 약세가 메모리 사이클의 정점 신호로 직결된다고 읽으면 안 된다. 현재 확인되는 것은 '컨슈머 세그먼트의 가격 전이 한계'이지 'AI 수요의 둔화'가 아니다. 판단 변경 트리거(하이퍼스케일러 케이펙스 축소, AI/서버 메모리 오더 지연)는 여전히 미확인.